"감사절은 오는데"

■ **이종윤 원로목사**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온다. 어떤 이는 1년을 결산하면서 겨우 이것이냐는 자조 속에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감격 속에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이가 있다.

내 그릇에 비해 부어주신 은혜가 과분하다.

다윗은 본래 미천한 목동이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추악한 죄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은총을 입혀주셨다. 다윗은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했다. 나의 사람됨이 선하지도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이나 받을 아니 선한 사람도 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종의 자리에 서게 하신 복을 내게 쏟아 부어주셨다면 이것이 내 잔이 넘치는 감사요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랴.

내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

농부가 밭을 갈 때 한 고랑을 갈고 뒤를 돌아보면 세 고랑이 갈려진 것을 볼 수 있듯이 나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고 나의 수고에 비해 추수가 풍성하며 업적에 비해 보상을 과분하게 받을 때가 많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나이다"라며 감격하며 찬양을 드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같은 특출한 아들을 얻었을 뿐이니라, 이런 비행을 범한 자신에게 암몬왕의 면류관까지 획득하는 개선의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황공한 은총이 비일비재였으니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이것이 어찌 다윗왕만의 간증이랴.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구속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업적에 비해 과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올해도 태풍과 가뭄이 지나갔고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37년 만에 대풍을 주셨고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으름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의 안보 상황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에 비해 성과를 크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내 기도에 비해 응답이 풍성하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성도의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이고 기쁨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하다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떠하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나 그가 구한 지혜 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까지도 받았다. 이러한 응답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수없이 체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오는데 자조보다는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하겠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나의 임종의 날에 마지막 남길 말로 자조가 아닌 찬송이 될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후대하셨기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원래 빈손으로 세상에 온 자임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현재의 처지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 정직한 자라면 빈공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특대 받기를 좋아하는 인생들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이러한 내가 이만큼이라도 주님의 권고를 입고 있다는 것은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시비치 말라. 내 지혜를 하나님 위에 놓으려는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고 감사절이 오는 이 계절에 범사에 감사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11월 23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며 2021 사명자대회 7째 주일입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이번 성찬식은 방역안전을 위해 개인용 성찬키트를 사용하게 되므로 세례(입교)교인들은 예배실 입장하실 때에 성찬위원이 나누어 주는 성찬키트를 받아 의자 앞 받침대에 놓고 계시다가, 성찬식 때에 담임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지난주 광고와 같이 서울교회에 주신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의미로 전액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이미 예고한대로 담임목사님 위임예식과 그동안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정상 교회 대면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중계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에 담임목사님을 강사로 하여 2021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의 정상화 및 방역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주일예배 차량이 증가되어 차량관리부에서 안내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상주차 차량이 예배 후 교회 앞 도로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차량흐름을 막아 전체 차량통행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지상주차 공간은 지하3층과 함께 교회직원이나 종일 봉사 성도 등 주일 장기 주차할 차량만 이용해 주시고, 예배시간 동안만 주차하실 성도들께서는 지하 1, 2층에 주차해 주시면 전체 주차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112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혜정,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옥(인도), 서광종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제31권 제47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1년 11월 21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더 깊은 믿음의 감사 "

■ **눅 17:11-19**

감사는 더 행복하게,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고 가르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즉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더 깊은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은혜의 발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셨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나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어느 한 마을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소외, 고통, 절망 등이 지배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직의 위기를 넘나드는 젊은이들 곁으로,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난 때문에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고 하십니다. 주님께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힘겨운 삶의 현장으로 우릴 찾아오십니다.

2. 은혜를 잊지 말라

열 명의 나환자들은 완전히 인생을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곁을 떠나야 했고, 생계가 막막해졌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무서운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빨리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단걸음에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큰 선물, 치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엎드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보이는 반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해결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무덤덤한 태도입니다. 은혜를 부정하지 않으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감사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먼 길을 다시 달려와 엎드려 감사하거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이후에 더욱 겸손하고, 헌신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은혜의 나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모금하여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후 9:8,9)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심은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감사는 나눔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제목이 가득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30주년, 목사위임, 집사권사 임직, 성찬성례전, 교회 회복과 예배의 정상화 등 꿈처럼 생각되던 일들이 현실의 은총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감사합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전재홍 목사	서문석 장로
Ⅲ	오후 2시	안용곤 목사	안용곤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6: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05(감사절 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301(46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17:11-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추수감사헌금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더 깊은 믿음의 감사"··· 손달익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 집 례 자
* 찬 송 Hymn ·····143(14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위임 / 임직 감사예배-

오후 5시 ·인도: 김성남 목사
·성경: 조용선 목사 ·설교: 이성수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요 11:40 ····· 인 도 자
찬 송 ····· 208(246) ····· 다 함 께
기 도 ····· 임상헌 장로
성 경 ····· 창 12:1-4 ····· 조용선 목사
봉 헌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 다 함 께
* 봉헌송 ····· 다 함 께
* 봉헌기도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복이 되는 교회, 복이 되는 목사님"··· 설 교 자
* 찬 송 ····· 320(350) ····· 다 함 께
* 주기도송 ····· 다 함 께

-2부 : 위임예식-

집례: 위임국장 주경일 목사
· 소개: 이영우 목사 · 서약: 주경일 목사

-3부 : 임직예식-

집례: 손달익 목사
· 임직자 소개: 임상헌 장로 · 서약: 손달익 목사
· 권면: 이순창 목사 · 축도: 이종윤 목사

수요예배

Ⅰ부 오전 11시 ·인도: 전재홍 목사
Ⅱ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Ⅰ부: 전화진 권사 Ⅱ부: 이건희 권사
성 경 ····· 행 9:23-4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 설 교 자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금주의 성구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 17:19)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2. **추수감사절 감사주일 /** 오늘은 추수감사절 감사주일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추수감사 및 설립 30주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3. **손달익 담임목사 위임예식 및 15대 집사, 14대 권사 임직예식**
일시 : 오늘(21일) 오후 찬양예배 시
장소 : 본당
14.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주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교회 대면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533명	728명	2,261명	377명	1,789명

맡은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다. 국가, 민족,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공직자로부터 모든 국민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충성을 열심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을 실행하는 충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맡은 자는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줄 아는 이가 쓰레기통에 휴지 한 장을 바로 넣을 줄 모른다거나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다음엔 함흥차사가 되었다면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될 수는 없다.

참된 일꾼은 일의 대가나 사욕을 채우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헌신과 희생이 있는 봉사자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질서와 겸손이 몸에 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끕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